알아둡시다

◇새로 移轉한 중앙회 현관입구 벽에는 120만 警友의 正體性을 상징하는 슬로건이 걸려 있다.

警友會의 正體性

警友會는 建國, 救國, 護國의 警察정신을 바탕으로 自由民主主義 體制守護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뭉친 조직입니다.

國家의 正體性을 지키고, 국민으로부터는 따뜻한 지역사회의 봉사자로 평가받으며, 현직 警察에게는 예비 치안인력의 임무를 수행하는 든든한 후원조직으로서 우리의 보람과 正體性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평생 국민을 위해 헌신하였던 우리들의 남은 열정과 사랑을 國家와 警察을 위해 모두 바칩시다.

기행문

6.25 격전지 백마고지를 다녀오면서

—— 이 승 범 회원 (서울종암 경우회장)

서울 종암경우회(산악회원 30여명)에서는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산세가 수려하고 계곡이 깊고 물이 맑아 주말에는 단체 관광객 및 가족단위로 등산객이 많이 찾고 있는 서울 근교 북악산 및 수락산에서 정기적으로 산행을 하고 있다.

을유년 새해 들어 지난 1.16 첫 산행일에는 서울지역에 갑자기 밤사이 눈이 1cm 가량 내리는 바람에 등산지역을 바꾸어 눈이 내리지 않은 경기도 연천군 신탄리 소재 고대산(해발 832m)에서 산행을 하기로 했다.

회원들은 의정부에서 10:20발 신탄리행 열차를 타고 1시간 10분쯤 달려서 종착역인 신탄리역에 도착.

13:30경 고대산 산행을 무사히 마친 다음 하산하여 대기 중이던 식당 버스편으로 대광리 ○○식당에 도착했다.

이번 산행은 모처럼의 원거리 산행길이어서 이 고장 고유토속 음식으로 즐겁게 회식을 갖도록 했다.

회식을 마친 다음 6.25 전쟁 중 최대 격전지였던 백마고지 및 노동당사, 월정역, 전망대 등 전방 전적지를 돌아보고 가기로 일정을 다시 잡고 버스에 승차하여 광활한 철원평야를 질주했다.

먼저 전망대에 도착하여 통일의 염원인 북녘땅을 망원경을 통하여 바라보았다. 휴전선 일대의 산야가 성큼 한눈에 펼쳐보인다.

평화롭던 이 일대의 산야는 6.25 전쟁이후 반세기의 장구한 세월을 통하여 위험한 지뢰밭이 되고 무성한 잡초만이 엉클어진 채 쌓이고 쌓여 아름다운 자연의 숲을 이루어 이름 모를 수많은 새들만이 짝을 지어 노래하며 뛰어 놀다 가는 남과 북의 하늘을 자유로이 날고 있었다.

여기야말로 새들의 지상낙원이 된 것 같았다. 실로 분단조국의 비극을 묵묵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회원들은 16:00경 전망대를 나와 월정역과 노동당사를 돌아보고 백마고지를 향하여 질주하였다.

백마고지기념관에 도착한 회원들은 먼저 전투전사 504위를 모신 위령비(慰靈碑) 앞에 집합하여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묵념을 올리고 영혼에 명복을 빌었다.

여기에 모신 분들은 조국의 자유와 평화통일을 위해 이 격전지에서 장열하게 산화하신 분들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피어보지도 못하고 전란기(戰亂期)에 나라의 부름을 받아 꽃다운 젊은 나이에 한목숨 초개(草芥)같이 바치신 분들이다. 위령비 앞을 내려오면서 가슴이 아팠다.

백마고지 전투는 1952. 10. 6부터 10. 15까지 10일간 피아 12차 공방 24회 전투로 28만 발의 포탄으로 1만 7천명의 사상자를 낳고 24번만에 우리의 손에 들어온 전투로서 6.25 한국전쟁(韓國戰爭) 중 최대의 격전지(激戰地)일 뿐만아니라 세계사상에서도 유례가 없는 치열한 접전지(接戰地)였다고 한다.

17:00경 회원들은 날이 저물고 있어 총총걸음으로 백마고지기념관을 나오면서 깊은 상념에 잠겼다. 그 당시의 전투가 그 얼마나 치열했으며 참혹했었는가?

그리고 그분들은 그 누구를 위하여 고귀한 목숨을 초개같이 버렸겠는가?

북한공산집단의 1950. 6. 25 남침에 맞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피흘려 싸우다가 먼저가신 그분들의 그 숭고한 애국충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처럼 자유를 누리고 이 만큼이나 경제가 발전된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분들의 영혼은 지금 황야에 서 있는 외로운 나무와 같이 그 아무도 관심 밖에 서 있고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지가 오래인 것 같다.

세월은 망각하고 있는지 젊은이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를 되묻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는가?

작금의 국가안보상황은 어떠한가? 국가보안법 폐지 등으로 국민들은 온통 이념갈등으로 국론은 분열되어 진보와 보수로 양분되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과거 인권피해 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등」을 조속히 폐지키 위한 대안 입법을 마련 강력히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 안보상황을 살펴볼 때 북한의 기본적 대남 전략 전술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북에서는 선군정치를 목표로 특수부대 등을 증원하는 등 군을 강화하고 핵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남북이 첨예(尖銳)하게 대치되고 있는 안보상황 하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남한만이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안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국민전체의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會 告

최근 일부 지방에서 警友會를 사칭, 각종 물품을 강매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전국 경찰에 단속을 의뢰한 바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지역 警友會에 신고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의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 한 민 국 재 향 경 우 회 장

警友時論

치안은 사회간접자본(SOC)이다

—— 최 인 철 회원 (시인 · 강원경찰 문인회장)

최근들어 끔찍한 강력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항공사 여승무원이 귀가 길에 피살되고 도로옆 모래상자에서 여자 변사체가 발견되는 등 생각만 해도 섬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다행히 경찰의 수사의지가 강력해 다소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 현재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국민 곁으로 다가서는 내부적인 개혁의지가 그 어느때 보다 성숙되어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폭력적 시위의 현저한 감소와 미성년자 매매춘 단속효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스쿨 폴리스제 운영 등은 적시성 있는 체감치안이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한 망동에 허준영 경찰청장의 독도방문은 나라의 치안과 함께 주권침해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국제적으로 확고하게 천명하였다.

경찰은 2030쎄미나를 통한 신세대 경찰관들의 신사고를 통해 사안별 메뉴얼을 작성하여 적재적소에 적용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때 특정정권의 시녀 역할에서 벗어나 과거의 불명예를 씻고 명실상부한 치안의 파수꾼으로 거듭 태어 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 아닐까 싶다.

치안도 국민 모두의 재산이다. 국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치안 서비스에 대해 균등한 수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철도, 항만, 비행장, 도로가 사회 간접자본이듯이 치안도 국민의 자산이요 사회 간접자본인 것이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인력, 장비가 현재로서는 열악하지만 일시에 확충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단계별로 치안분야의 예산 투자를 늘려 모든 국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고 부녀자가 밤거리를 편안하게 활보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이 높은 계층은 무인방범시설 등을 자비로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어느정도 보호 받을 수 있으나 일반 서민층은 아직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최근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범성있는 곳에 무인 카메라를 장착하고 각급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동사무소 등에 무인 경보시설을 확충하여 재택근무에 따른 치안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국민 자율방범체제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의 범죄 사각지대 해소책으로 지역을 초월한 시.도간 시.군간 수사공조를 위해 광역수사대, 여성기동대, 파출소를 통합한 광역지구대, 스쿨 폴리스제 등 새로운 치안시책을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제도의 형식성보다 경찰의 방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적 물적 요소를 총점검하여야 한다. 경찰이 치안역량을 집중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온 국민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야 한다.

「不滅의 이순신」

—— 황 철 주 회원 (서울 강동경우회)

요즘 KBS에서 방영하고 있는 대하역사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보고 있노라면 임진왜란을 앞두고 전라좌도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군선제조와 장병들에 대한 훈련 등 일본침략에 대비하는 모습은 눈물이 나도록 큰 감동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으로 갈라진 조정은 민족의 존망이 걸려 있는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살리겠다는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상대당의 배척과 자당의 득세를 위한 붕당싸움만 하고 있어 실망스럽고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임진왜란 직전의 3년동안 그 중요한 시기에 동인과 서인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중요사안을 보기로 한다.

먼저 임진왜란 3년 전인 1589년(宣祖 22年)에 정여립(鄭汝立) 역모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간에 극렬한 싸움이 벌어진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위관(委官·오늘날의 수사본부장)을 처음에는 동인인 우의정 정언신(鄭彦信)이 맡았었는데, 서인측에서 "정언신은 정여립과 친척일 뿐 아니라 같은 동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미온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 결국 위관은 서인 정철(鄭澈)로 바뀌게 된다. 이 때 서인들은 동인들에게 일대 타격을 가하여 정언신을 유배보내서 죽게 하고, 정여립과 서신 한 장 주고받은 사람들까지 찾아내어 처형하는 등 참혹한 보복을 가했다. 서인의 거두인 송강(松江) 정철은 정여립 역모사건의 위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정치인이기보다는 유명한 관동별곡(關東別曲)과 사미인곡(思美人曲)을 쓴 가사 문학의 대가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도 광해군(光海君)을 세자로 책봉할 것을 주청하다가 임금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강계로 유배되고 만다.

다음으로 임진왜란 2년 전인 1590년(선조 23년) 서인 황윤길(黃允吉)과 동인 김성일(金誠一)이 일본에 통신사로 다녀온 후 일본의 침략 여부를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이 격돌하는데, 결국 침략을 주장하는 서인의 주장은 묵살되고, 집권당 동인의 주장인 불침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비를 소홀히 한다. 이 역사적 과오는 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두고두고 후손들로부터 비평을 받고 있다. 이것뿐 아니라 당시 조선 조정은 대마도의 도주 종의지(宗義智)로부터 일본이 침입한다는 정보를 전후 4회에 걸쳐서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니 지배층이 얼마나 나태했는지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진왜란(壬辰倭亂) 1년 전인 1591년(선조 24년) 전라도 정읍 현감으로 있던 이순신 장군이 동인인 우의정 유성룡(柳成龍)의 천거로 전라좌도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임명되자, 서인들은 들고 일어나 그 인사의 철회를 주청한다. 그들은 종육품(從六品)인 현감이 정삼품(正三品)인 수군절도사로 무려 7계급이나 뛰어넘은 부당한 인사임을 내세웠지만, 그것보다는 동인인 유성룡이 천거하였기 때문에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능력이나 인물의 됨됨이보다는 먼저 당파적인 이해득실을 따졌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임명된 것은 천우신조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일본군에게 제해권을 빼앗겨 그들은 해상으로 보급을 받으면서 명나라 수도 북경까지도 점령할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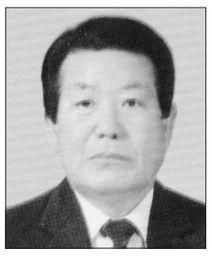
필자는 이 대하역사극 '불멸의 이순신'을 보면서 오늘날의 국가적 위기 상황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곤 하는데, 오늘날의 노무현 정권의 정치코드는 400년 전 임진왜란 직전에 벌어졌던 동·서인의 붕당정치와 아주 흡사하다는 생각을 한다. 자기들과 뜻이 맞는 사람끼리는 한패가 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과감하게 배척하는 이른 바 '패거리 정치'라는 점에서 양자는 한치의 차이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과 그 지배층이 국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국가관이 얼마나 해이한가를 알 수 있게 하며, 북한에 많은 자금과 물자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핵폭탄 제조를 막지 못한 무능함은 임진왜란 전 일본의 침략을 과소평가 하여 불침으로 결혼을 내리고 대비를 소홀히 하였다가 민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역사적 과오를 연상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 대하역사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제작 방영하고 있는 KBS에 감사드리고, 또한 추운 날씨 속에서 촬영에 고생하는 연기자들과 스텝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일진회'의 사회적 파장

—— 장 익 순 회원 (보령참전경찰유공자 회장)



경찰청의 일진회 "일망타진(一網打盡)" 방침을 놓고 경찰이 고민에 빠져 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일진회(一進會)" 해체를 위해 전국 일선경찰 형사계와 여성청소년계, 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등을 총동원해 학교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현행법상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행, 협박, 공갈죄)이나 형법(강간죄)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질 경우 청소년 "전과자(前科者)" 양상이 불가피하다. 전국경찰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최근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단위 도시를 중심으로 일진회의 학교폭력이 갈수록 도를 넘어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 경찰청과 함께 교육부, 학부모까지 총가세해 일진회 소탕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학교폭력이 최고조의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한 청소년의 사법처리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견해도 없지 않다. 지난 90년대 후반 판치던 일진회 외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에 나섰던 K형사는 물론 학교폭력은 잠잠해졌지만 청소년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했다는 게 여전히 상처로 남는다고 회상했다.

한번 전과자로 분류된 청소년이 그 덫에서 빠져 나오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다.

당초 형사계에서 전담하던 학교폭력이 여성청소년계로 이관된 것 역시 "법적용" 보다는 "계도"를 통해 이 같은 후유증을 최대한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학교폭력의 주범인 일진회 소탕을 두고 경찰이 또 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학교폭력 청산과 청소년 전과자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겠으나 최근 "일진회의 사회적 파장"은 전자(前者)를 더 쫓아가도록 하는 분위기다.